

산자부 기업이전대상지역 고시 반대

포천시 서명운동 등 단체행동 불사의지 밝혀

포천시가 정부의 기업지방이전 대상지역 고시 움직임에 반발, 범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자연보전권역 11개 시가 공동대책 위원회를 구성기로 하는 등 전면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포천시는 포천시와 경기도 산업 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키는 정부

의 기업 지방이전 정책을 결사반대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특히 고임금과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부도 및 해외이전 등 많은 기업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100인 이상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포천시를 비롯한 11개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을 기업 이전 대상지역에서 즉시 제외시키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규정한 점경지역을 나후 지역으로 정하여 개발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법으로 제정해 놓고 시행령에는 기업의 지방이전 대상으로 정하는 자가당착적인 모순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포천시는 경기도의 기업이전 대상지역 선정과 관련 의견제

출요청에 대해 대상지역으로의 선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도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이 포함되는 것을 수용하되, 그 지역은 배제되도록 산자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시는 관련 공무원 회의와 국회 의원 당선자, 시의원, 관내 기업체 대표 및 양대 노총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설명회를 잇달아 열 예정이다.

설명회를 통해 시는 기업의 시장 원리를 무시한 인위적인 기업이전 정책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만 상실시킬 뿐이며 대기업의 지방이전은 수많은 협력업체의 연쇄 이전이나 도산을 초래해 지역 산업이 심각히 위축되고 공장이 이전하면 전체 종업원의 절반이 넘는 해당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업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등의 예상되는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기업 이전 반대 여론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hntel.net



백두산 호랑이 2세 기대 어렵다



국립수목원은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중국방문 당시 장쩌민 전 중국 주석으로부터 기증받은 백두산 호랑이가 10여년이 지난도록 새끼를 낳지 못하자, 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한·중 임업협력회의에서 헤이룽장성 하이린시 동베이(동북)호림원 소속 백두산 호랑이 번식 전문가의 방한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13일 6박7일 일정으로 국립수목원을 방문한 전문가 3명은 체류기간 수컷(14살)과 암컷(13살) 호랑이의 교미시도 장면과 일상생활 등의 모습이 담긴 영상

경기 포천시 국립수목원 산림동물원 안 백두산 호랑이 부부 사이에서 2세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사건 II 사고

미군 돌, 택시비 안주고 달아나다 운전사 등 폭행

의정부경찰서는 16일 타고 간 택시비를 주지 않은채 달아나다 붙잡으려는 택시기사 및 행인 등을 폭행한 미 2사단 소속 M(24) 상병 등 2명을 폭력 등 혐의로 체포, 미 헌병대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M은 지난 15일 밤 11시30분경 동두천 미2사단 정문 앞에서 의정부시 가능동까지 서모씨(45)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서는 택시비 3만6000원을 주지 않은 채 달아나다 붙잡으려는 서씨를 폭행한 혐의다.

M과 또 다른 미군 W(24) 상병은 "강도를 당했다"는 서씨의 소리를 들은 행인 한모씨(43)가 M 등을 잡기 위해 112 신고를 하자 폭행한 데 이어 한씨의 휴대폰을 뺏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고리 소재 유한수지 화재 발생

지난 15일 12시 10분쯤 포천시 동고리 소재 유한수지(스티로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최초 목격자에 의하면 12시 10분쯤 공장 2층에서 "퍽" 소리가 들리면서 불꽃이 일어나 공장내부로 번졌다. 포천 소방서에서 소방차와 119구급대 등이 출동했지만 인화성 물질이라 쉽사리 불길이 잡히지 않아 화재 진압에 진통을 겪었다.

단독주채 화재, 70대 노인 질식 사망

19일 오전 10시 45분경 포천시 신읍동 고교(74세)씨 집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집안에 있던 고씨가 연기에 질식사해 사망했다. 화재는 25평 규모의 단독주택 내부를 전소시키고 10여분만에 진화됐다. 고씨는 이날 오전 8시경 인근에 살고 있는 아들(45세)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한 뒤 집에 돌아와 잠을 자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천경찰서는 홀로 살고 있는 고씨가 전기장판을 깔고 잠을 자다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신복 기지리, 전기 압력발습 폭발

19일 오전 11시께 포천시 신복면 기지리 S아파트 정모(30세.여)씨 집에서 전기 압력발습이 갑자기 폭발했다. 정씨는 "안방에서 생후 2개월 된 아이와 함께 있었는데 주방에 있던 전기 압력발습이 갑자기 '핑'하는 소리와 함께 터지면서 뚜껑이 위로 치솟

고 밥솥 안에 있던 밥이 천장과안방까지 날아왔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생후 2개월된 아이와 안방에 있던 정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으나 폭발음에 놀란 정씨 아이가 크게 놀라 경기를 일으켰다. 폭발한 문제의 압력밥솥은 정씨가 지난해 4월 결혼하면서 구입한 모 전자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현재 생산회사에서 일정부분 결함을 인정하고 동일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리콜을 실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빗길 승용차 신호기 충돌, 5명 사상

지난 10일 오전 8시57분경 포천시 내촌면 소학2리 47번 국도 삼호레미콘 앞길에서 최귀복(34.포천시 내촌면)씨가 몰던 EF쏘나타 승용차가 반대편 도로가에 설치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황원원(23).강경연(47.여), 김양희(44.여)씨 등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한해욱(36.여)씨와 운전자 최씨가 크게 다쳐 내촌 열린의원과 장현 현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내촌면에 위치한 장애인 수용시설인 청음공방과 운보원에서 각각 일하는 직원들인 이들은 최씨의 차를 타고 함께 출근하던 길이었으며 이들도 모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당에서 내촌방면 편도 1차선 오른쪽 커브 길에 몰리던 최씨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변 신호기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방종업원 유인, 아산서 성폭행

양주경찰서는 11일 다방 종업원을 유인해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이모씨(42.의정부시 장암동)에 대해 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1시에 다방종업원 최모씨(38)에게 '차녀를 먹으러 가지'며 승용차에 태운 뒤 양주시 도하리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다.

'식사하자'고 피어 성폭행

양주경찰서는 10일 식사를 하자며 다방 여종업원을 피어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께 양주시 모 다방에서 종업원 최모(38)씨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며 승용차로 유인한 뒤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끌고가 둔기로 머리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뒤 성폭행한 혐의다.

미군훈련장 민원, 주민이 직접 협의해결

영종면 포사격장 기름유출 민원 관련대책 마련

미군 훈련장 민원과 관련, 주한 미군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나 잇따라 협의를 이끌어 내 미군 관련 민원 해결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SOFA)에 따라 국방부와 협의해 왔으나 지난해말 미8군과 경기도 제2청이 대화 채널을 마련한 이후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대표와 직접 협의하고 있다. 제2청 관계자는 "그동안 이해 당사자인 주민이 배제된채 미8군-국방부 협의 채널이 유지되면서

민원 해결이 늦어지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이해 당사자인 미군과 지역 주민이 직접 만나 협의하는 사례가 잇따라 향후 미군 관련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병갑 기자 jpk61@hanmir.com

시설채소 작목반 울리는 중간상인

밭떼기 중간상인의 횡포 제동 못해

하우스를 이용해 시설채소 작목반을 운영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계약서 없이 하우스 동별로 매매 약속을 하고 그 기간동안 시세가 떨어지는 차액을 농가에 전가시키는 채소중간상인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일명밭떼기 하우스 시설채소 작목반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채소중간상인과 지난 4월10일 1천550만원에 구두계약을 하고 500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중간상인은 4월16일에 채소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중 300만원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박 씨는 억울했지만 다른 채소를 심어서 수확을 봐야 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빼주기로 했다. 그러나 중간상인은 채소를 수확해 가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박씨가 또 다른 채소를 심지 못하게 방해하

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시 계약금액에서 일부를 빼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피해사례가 시설채소 농가에서 속출하고 있으나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상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채소 작목반과 중간상인들 사이에 계약서가 '파'는 통용되나 다른 채소류에는 통용되지 않고 있어 순박한 농민들만 중간상인들에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박 씨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농민이 시세차액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다"며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ntel.net



▲밭떼기로 넘겼으나 출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

Family Resort 푸른언덕(구 신한연수원)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여유롭고 편안한 야외결혼식장 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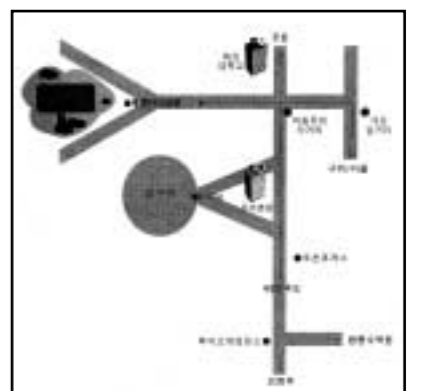


그동안 잊고 지냈던 주위에 소중한 분들을 모시는 공간으로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세요. 음악과 웃음, 가족간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 푸른언덕으로 가족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시설이용안내
- 식당
- (한식·양식 실외)
- 산책로
- 운동장
- 야외수영장
- 나루터
- 정자
- 야외토론장
- 연못



푸른언덕 식당 전경



회갑잔치·돌잔치·한정식·왕갈비·석쇠장어구이·송어회·바베큐·뷔페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75-11//예약문의 : 031)541-0184, 016-703-6522// 상무 : 편 경 자